

憂慮亡在日僑胞의愛國心

長會總長
談牧師權

大韓長會總長
談牧師權

지치에
이以北에서
越蘭인
婦女子를
不知其數다
戰災避難民을
苦
이같은
사람들을
爲한
救濟

多節이
지어가
는데
同胞의
衣食住問題는
日本은
도에서
는
相像도
吳
서을地
方에
는

眞은
權牧師
(牧師)
를
발한
후으로
으로
防한
것은
때
國의
災情을
다
을
과
같이
말한
것다
(寫



所에
病院이
서
있는
때
病院
마다
濟民이
요
收容
하는
故도
있다
그
中에
는
生命
의
감지
한
사
실을
말
게
하는
법
법
기
기
한
것
들

僑胞軍人을
爲하여는
五十數個
病院이
서
있는
때
病院
마다
濟民이
요
收容
하는
故도
있다
그
中에
는
生命
의
감지
한
사
실을
말
게
하는
법
법
기
기
한
것
들

李大統領 教會紛爭에 所信表明

李大統領께서는 鴨綠館(十一月三日木曜日二十二日)에 敎
會指導者들을 召見하시고 聖지 다 음과 같은 所語를 獨語
하시다 (寫眞은 李大統領)

學生하고 있는 事는 實은 잘 알 위 모라 할 것으로서 한다 敎
育이다 全團體敎會에서는 敎會의 新聲에 있어서 大統領의
들이 國家를 爲하여 努力하고 있을를 國運시키려는 意圖이
있는 사실로 들린다 이러한 大端히는 오한리 共產主義와의 關係
에 對하여 顯著하여 答대하는는 오한리 共產主義와의 關係
나 어찌나니 한다는 말은 유감에 敎會의 使命이름을 믿고 있
스런은 일이다 더욱히 敎會의 다 나도 總理敎人이며 하와이에서
一部에서 大統領이 敎會에 對의 敎會에 牧師를 派遣하고 있다
하여 答대云々 한듯이 宣傳하 우리들의 朝 夕으로 國家와
있고 있다 그립한은 勿論히 民族을 爲하여 祈도하고 있다

困難을 당하여 우리나라 基督
敎會가 얼마나 힘있게 反共精神
을 하고 있으며 또 그로 인하
여 數 많은 敎會者들이 희생
되었고 또 現在 迫害을 당해서



和平努力會、監督司會

[illegible]

非常措置規定決議

자신은 二日 午前九時 特別總會에
참석해서 柳樹기博士의 司會로
折込會가 열렸다. 韓昇平博士의
演說으로 무이로써의 뜻깊은
것은民族感情이 일컫는 충
격이 알뜰수 없다.
그러나 鑑者는 이주하길
걱정하지 않는바 아니다.
말피와 발음상의 當然한誤謬
이라고 判定하면서 이該報을
올바루 일일할수 있을가를 생
覺한다. 大槪에 懷恨落心하는
朝鮮民衆을 向하여 「독일만
족」 나서는 「仁義」는 없
다. 世界는 仁義를 誼目하
고 있다」고 의전 宣稱의
말을 우리는 누구의 입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것 같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이런
말을 할자가 있을까보라!!
「나다 들었오는 소식은
에 보이는 事實이 오히려

失禮를 더한것 밖에 없다.
敍述은 再起하였고 悲愴의繩
太民主存統되고있다. 敍述은
現代藝術의技術의 起程을 하
였도 船太民主는 悠久한歷史를
繼承하고 있다. 저들에게는
失望이 있었단것이 사실이다
落心되는때에 퍼미친 자들이
있었고요 先覺者들의 깨우치
는정신을 절실히따라내 이르릴
수 있었던것이다.

우리는말시와 時代에서
血氣을 일으키기전에 歷史의
가르치는것을 바로보고 各層
가 充분대로 自醒命知를
發見하여 한거를 두들겨부스
나가야 할것이 알맞아 한다.
鑑者는 이말을 귀를 기울

리는 韓國基督青年男女會에
드리는 바이다. 우리는 이
笑을 볼때 가슴에 피가차
날없이 감칠맛을 가지지않
그러나 惡心지 않은 무리
다 그것은 僞仰이라는 새
유예와敬慕가 있기때문은
여기서 鑑者主曰
맞이하는 感謝와 새聲格
이러나는 것이다. 우리인들
배운民族의 後孫이 알뜰가
憤慨가없을까 그러나 우리
僞仰에서 이現象을 喜悅하
하나나의 目的있는歷史에
從하려고 聖賢에 依支하여
강추이處理의 趣味를 찾아
瞻慕를 물치지는關係를함도
努力하여야 할것이다.(五)

特別總會가 있니 同一時무
由은 現在의 戰時下에
是理會會議에依根據 合法
인總會를 召集하기가 不可能
가 아니었던것이다

萬國聖書主日

社
++++++
금단 만수성
선출일은 十二월九일주일이되게 되었고 연제든지 十二월을 제 주일인 성서요일로 정하여 그 날에 후히 성서지파에 대하여 노략할것을 결심하기로 된것은 바로 한세기가 넘는 중요한 행사로서 의미가 있다

十一월의 제주일의 하나니오 말씀들 생각하도 그 말씀을 다 받은 사람에게 의하기 위하여 결심하고 그말씀의 중심을 일으키고 일과와 나란하신 예수 그리

스도의 성약을 가깝한라는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세상에는 二배의방언이 있는데 그중 一배는 양으로 성령이 베풀리어 자아 반수의 상의 방언을 말하는 믿음들이 하나니 말씀들을 읽을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一九五〇년도에 성경의 전파된 것을 보면 성경전서가 二배五十만권 신약구약 파도파로三四四十만권 단편(성경의 각책 마로마로)이 一천대백만권 총합 二천二백만권이 전파되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어 방언은 一천구백만여만이나 수자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성경전서에 더 노력 할데이지는 아직도 많고 많다고 그리고 우리나라인구수에 비교하여 九백三十三만이라는것은 비교도 못되는 수니 우리의 책들이 또한크고 크다

있는 셈이었다 이 성경전서자야는 성서공회들 통하여 실해되고 있으나 그리스도교신자 개개인 이 일을 위하여 성서공회에 협력하지하니 하염 성서공회를받은 도저히 다 할수 없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우리는

歷史의指示 하는길로

應園이 오늘에 당하는 애
難事 難事 難事 難事 難事
아는이가 누구일까 軍事專門家를 비롯하여 若干의知識人士를들은 應園不必論云々하는 이들이 많다

敎人으로서 이말을 들을때 그렇게하고 鑑定할자가 있을가 비록 팔파다리가 붙나지 않고 쪼개져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나고 손을 통치이다 이

歷史의指示

하느님의 사랑

慈眼의 은사의 당하는 애
慕를 事蒙한 敵人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軍師專門
家들은 비로하여도 若干의知識이
정확하게 韓國不必斷을云々하
는 이들이 많나

敵人으로서 이 말을 들을 때
驚愕하고 痛楚할자가 있을
지 모르나 비록 팔파다리가 붙이지
나 췌거져서 사람이랄 할지라도
수많은 동지이다 이

올바른 일일키우 잊음이 생
활한다 大膽에 慘惡心하는
敵國民衆을 向하여 「독일인
들이 나쁜 亡化에서는 알
려나」 세계는 나쁜을 許目하
고 있다」외친 恨의 말은 우리는 누구의 의에서
나오기를 기다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이런
말을 할자가 있었을까보라!!
남마다 돌림오는 소식이
에 보이는 事實이 오히려

失望이 없었던것이 아니라
苦心하는데 머뭇진 자들의
아이였고 先覺者의 깨우치
는일을 걸었다가본데 이러설
수 있었던것과 처대 에서
血氣을 일으키기전에 歷史의
 가르치는일을 바로보고 各層
가 천분대로 自己救済的을
發見하여 한가를 두방와소식
나가야 할것이 앞날이 한다
繼着者는 이같은 것을 기우

수學考及敎科가 있기때문이
여기서 우리는 基督主日의
맞아하는 感謝와 새생機가
있어나 것이라 우리들을
배울民族의 後孫이 우리를
憤慨하였을가 그러나 우리
儒教에서 이現象을 喜慶하
하나나의 目的있는態度에
從하려고 聖賢에 倣效하여
강추이理理의 秘味를 찾아
瞻鼻을 물니치고閑等함으로
努力하여야 할것이다(五)

[illegible]

華案이 社會을 牧導에 의하여
 上層되어 金芳柱 趙文 文 趙模長
 老 金芳柱 趙模長이 지어 제에 제
 한 憲仁 趙模長이 있었고 趙士 同案
 은 다 各과 같이 通判 年會와 이
 로서 通判 年會와 聯合을 열었다
 는 法의 조치가 取하여 진 것이
 △第一条 本非常情狀에 規定
 事 突으로 인하여 正判의인 該會
 議會(黨會 區域會 地方會)를
 構成할 수 없게 不得한 地域內
 에 限하여 適用한
 △第二条 第一条에 該當한 地
 域內에 居住한 該黨者外 平
 이 限하여 適用한
 △第三条 正式總會와
 年會는 中部 西部의 中央
 會가 參加한 應吏의인 集會가
 될 것이 約束되오며 特別總會는
 이로써 終了되다
 △人權
 △權通竊 大總長總會는 提議 次渡
 △金天培 大總長 連會는 學生部幹
 事 印度旅行 次來社
 △李泰雨 總國神學大學建設 總理
 部長、用務渡日來社

會館으로 遷徙한지 六二歲時所屬教會의	會館으로 認定하다	△第三 條一九五二年十一月에 開辦한지 年會에 參預할 平穩 崔代表는 第一條에 該當한 地域 에 限하여 一九五〇年度代表로써 하다	△第四條 本規定은 特別總會 에서 承認된 대로 效力을 有 生하되 年會組織以後에는 自然 廢止한다	이러 西部年會 宗旨 주牧師로 부 다를 수 같은은 要지의 宗務의	呼號로써 祈願件이 있인것 우리 西部年會은 三八以北 族 의 西部年會에서 宣稱함을 한것을 들은 宣教師가 말함 ▲이 聖教會에서 宣稱함이 있는게 會中에 있다
---------------------------	--------------	---	--	--	---

의 禮葬중에서 五、六年을 苦生
한 中 이 六六・二五番案으로
六十七名 倭役者中 四十八名이
總數 혹은 拉致當何여고 國連
軍과 國電에 威力으로 干廻一遇
에 機會를이더 나 머지 二十名을
倭役者와 謫居僑徒들이 쿠차인
자차와서 只今 門前사리하고있
우리 서부본사에 總會에參
加케하야알나 는 呼號도 元祖
國이 治하고있는 現狀의 倭表現
으로 場內를 騷擾하였다
우이 騷擾은 이것을 二今年會라
는 말도 表現하면서 西部年會가
고 그事由를 用이더니 曰 倭
教師의 言을듣노니 우리집
은 當카키 生覺남고 하
었다 ▲이이야기 未지 未詳
우리나라 倭教余談이다 伝説의
必要와 倭會의 聖典은 困難하
다 倭會를 用이나는 僑徒에 對한
다는 것은 그말마나 容易하고
難任이 무거운 重한 生覺
하고 苦勞를 새로히 할바가

世界書日

世界聖書日曜日 12月9日

聖經은 읽자

聖經은 人類의 生命의 冊이다. 個人의 家庭이나 社會에 있어서 聖經을 대로 삼자. 聖經대로 살라면 聖經을 일거야 한다. 聖經을 아저야 할다. 本國에서 가 한卷식은 없어서 아우성인데는 聖經이 아니라 살수 있다. 幸히 우리는 얼마든지 살수 있다. 大韓聖書公會에서

眞珠 聖經 全書 (포)의

眞珠 聖經 全書 (포)의

價二五〇圓

新約全書 (포)의

眞珠

簡易 國漢文	新約全書	價八圓
新約全書付詩篇	價八圓	(포)의
新約全書付詩篇	價八圓	(지)의
新約全書	價五圓	(지)의
懷中 新約全書付詩篇	價四圓	(지)의

價皮衣二六〇圓 布衣七〇圓

東京都銀座四の二 聖書館内

大韓聖書公會

日本語聖書・外國語聖書多冊に取揃えてございます、御照
会下さい

日本聖書協會

東京・銀座 振替東京一八四二〇
関西支社 大阪・土佐堀

「사포남이
기절 하셔요」와 거스디
안 용 준

우리國家에서는 社會相互는 勿論이 아니라 하나나 두 사람과 人格關係에서까지「教育關係」가 主의 周到한 處理의 秩序로 恒常 維持形成되어 있음이나 健全한 教育을 受한「教育의 責任」이 獨斷獨行한 人에게는 不在함을 보인 일이 余 甚矣云云이다

世界史의 巨大한 魔物이 鹽王에 對하여 發한 이 形
 局에서 우리는 鹽王도 더 惡劣하여 우리를 이물 처럼
 幻像의 出現을 기다려 왔을지나 該罪의 該罰의 狀況은
 그의 母體인 教會와 그리스도人의 心은 不安을 因하여
 그의 生氣를 喪失한 死骸의 거울이 一時를 주어 發한 寒風

本協榮仁 烏리나라 그리스도敎會의 陸史士에 任지
았은 奉仕와 貢獻을 끼쳤으니라 勳功으로 말미암아 不
得口 해포 그 事業을 發行치 못하다가 지난 十月初五
日日本 東京에 臨時事務所를 開設하고 方今 그 活動
을 日本에게 되찾나니 慶典이라 各方面과의 連絡
亦亦(亦)이 甚대 熱烈히 要인 形勢에서 今後 發展

교육의課程	敎育の課程	바람보고	각수手段	다하여	世界敎界의
先導者로서	先導者として	배우며	國內外의	敎界의	切實한
한 熊勢로	熊勢を以て	있을니다	在日敎會의	敎育責任者	및 一般의
속한한	西遊考	利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一九五一年十二月
東京都千代田区神田猿樂町二ノ四越岡 Y.M.C.A 内
越岡基督教教育協議会 委員長 任 英 梯 白
一、教会学校教員 教案、教材刊行
二、教会学校教師の養成
三、基督教教育者講習刊行

基督教書なら 新古和洋書一切

何んでも揃つて居る
唯一の専門店！

東京都千代田区神田神保町一ノ四四
有限會社
友愛書房
台博愛堂

御註文はなるべく早め
に御申下さい。御伺
込を承けましたら、

主 書カレンダー
三巻に描き及ぶ小鳥
迄にお願い致します

東京都千代田区神田錦町一ノ六(基督教団ビル)

新々堂

発行行

振替東京七六四六九番

안容준

近代智性と基督教의 神觀 ||

[illegible]

崔牧師招いて傳道集會

[illegible]

제4장 宗教

이것이 사회 모든 기관들의 표현은
가장 단순하고 저의 아한 것이라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神과國權
의眞理이다 衆世와 並行에 대하
며 표현한 것이 있을나니 神에
게 있어 모든 사람은 平等한 나
다 미국 독립선언서 그처럼 있어
어 이原理은如左히 표현되었을
나니
「造物主는 모든 사람으로 두가지
創造하였다 그리고 그는 영
不變의權利를賦與하였는데
그중에는生命과自由와幸福을追求
하는權利가 포함되어있다」
여기에서 우리는民主主義의基本
價値의宗教的土臺를찾아냈는데
그것은종교를사함은 다갓다는것
造物主는 그를다른가치로創造하
였다는것이니다 사람은다갓지인
같은가 혹은사람은그때부터나
른것이있는것이라고 주장하는사
도있지만옳습니다 그러나敎會

오 오직其權限을정의 變하지지
고 또그것들이강권과平和 表現

그림으로서 사람을 취급하는데 있어
種族이나階級이나權力의差를
생각하지는것을示한다 그림으로써
오세기에 모든차별표류들은人
間平等이라는것을인식할수있
나니 문헌사상이에 있어社會
正義와政治平等과世界平和를
維持하는데는社會制度를樹立하
여보려고 힘쓰고있는것이示된다
人間機關에서 호의를잇는것과
자식 이외의영역시 그네를이탈
할고 또其敎條들에게 가라지
는그는理想을 언제나未實行하
는것이아닌나 그러기때문에요
회가를내서團體人權을인
認別하는것과 非民主主義的人
의政治治理을爲하는것과 잘
오事實도 때로는맞는것이니다
그러나바실현狀念 敎會自体가
代表하는 종교적신앙의뜻이아니
오 오직其權限을정의 變하지지
고 또그것들이강권과平和 表現

생이될것이고 결국強權者의意
로權力을써서는안되겠임니다
그들은오직權限한지해와袖拂한
힘으로써一般敎徒를 인도할것임
니다 偉大한指圖를畫할수록 그는
결론한것이며 도대체 인간을
하여 자기희생을해서 부스럼을
이음시다 어전牧師나 敎役者가
있어 敎會안의其自身の地位가늘
아지고올라서 열광하다야합
그는眞正한 종교의정신을 나타내
는것이아니고말씀입니다 偉대한
종교적지도자로 도성생이사 한
분은일즉 자기는 삼천인이니오
주이라고 그래서 온민들을 섬
기는것이그의책임이라고 말씀하
였습니다 그림으로써 참된종교는
其本質上民主主義의정치이요 또
그리기때문에 인문體裁의幸福을
위하는것이니다
이세계에는 여러가지의종교가있
고 또그것들이강권과平和 表現

韓人教會는滿足·케네디博士談

[illegible]

勉青連合會

[illegible]

クリスマス劇集

メシアを待つ人々
イニスフェールの鐘
グレッツチオの馬槽
大きい人形

☆附録・劇に用いる歌歌と曲歌

☆紙芝居の贈物☆

靴屋のマルチン
イエスキリスト(上) 降誕物語
イエスキリスト(下) 十十字架

二十枚一組 価二〇〇円
四十枚一組 価二五〇円
六十枚一組 価三〇〇円
八十枚一組 価三五〇円
九十枚一組 価四〇〇円

カトリックダイジエースト

世界のクリスマス圖説(フエーデン、イタリア、アメリカ、大都會、農村のクリスマス風俗)
我が家のクリスマス(明日はクリスマスといふ日のあわだちくましく楽しい家庭の光景)
第二のヘレン・ナラー(自己宛書す、耳は聞こえぬながら、不接の憂鬱に生きる一青年の人生物語)
それでは燃あきらめず(囚者ながら希望を告げられながら、向希望に生きる親と子の切々なる愛樹)

金160円
銀50円
銅128円
(定価)

☆紙芝居の贈物☆

靴屋のマルチン
イエスキリスト(上) 降誕物語
イエスキリスト(下) 十十字架

二十枚一組 価二〇〇円
四十枚一組 価二五〇円
六十枚一組 価三〇〇円
八十枚一組 価三五〇円
九十枚一組 価四〇〇円

カトリックダイジエースト

世界のクリスマス圖説(フエーデン、イタリア、アメリカ、大都會、農村のクリスマス風俗)
我が家のクリスマス(明日はクリスマスといふ日のあわだちくましく楽しい家庭の光景)
第二のヘレン・ナラー(自己宛書す、耳は聞こえぬながら、不接の憂鬱に生きる一青年の人生物語)
それでは燃あきらめず(囚者ながら希望を告げられながら、向希望に生きる親と子の切々なる愛樹)

金160円
銀50円
銅128円
(定価)

☆紙芝居の贈物☆

靴屋のマルチン
イエスキリスト(上) 降誕物語
イエスキリスト(下) 十十字架

二十枚一組 価二〇〇円
四十枚一組 価二五〇円
六十枚一組 価三〇〇円
八十枚一組 価三五〇円
九十枚一組 価四〇〇円

カトリックダイジエースト

世界のクリスマス圖説(フエーデン、イタリア、アメリカ、大都會、農村のクリスマス風俗)
我が家のクリスマス(明日はクリスマスといふ日のあわだちくましく楽しい家庭の光景)
第二のヘレン・ナラー(自己宛書す、耳は聞こえぬながら、不接の憂鬱に生きる一青年の人生物語)
それでは燃あきらめず(囚者ながら希望を告げられながら、向希望に生きる親と子の切々なる愛樹)